저금리 · 장수시대 도래와 美 연금(Annuity)시장의 대응

2020.12.03

심현정 선임연구원

CONTENTS

Ⅰ. 서론

Ⅱ. 금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상품 발전

1. 안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주목받은 연금(1930~1970년대)

2. 주식시장 상승과 변액연금 판매 확대(1980년대~2000년)

3. 중위험·중수익형 연금상품 발전(2000년대 이후)

Ⅲ. 장수시대에 대응하는 연금제도 변화

1. 장수연금 활성화

2. 평생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의 퇴직계좌 편입 장려

Ⅳ. 결론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요 약 >

◉ 연금(annuity)은 보험료 납입 후 노후에 인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장수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신소득 지급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장수시대의 도래로 연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 속에 금리형 상품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연금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임.

◉ 미국 연금시장 역시 저금리 및 시장 변동 위기를 수차례 겪었으나 다음과 같이 꾸준한 상품개발과 정책 수립을 통해 저금리·장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금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한 연금상품 발전

	〈 배경〉		〈 대응 〉
1	대공황 이후 불안정한 시장에서 안전한 장기 저축 수요 증가	»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장기저축의 장점이 강조되며 연금 시장 확대
2	주가 상승으로 인한 고수익 추구 니즈 확대	»	주식투자를 통해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 개발
3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은퇴 저축 수요 증가	»	중위험, 중수익 성격의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 구조화연금 출시

장수시대에 대응하는 연금 제도 변화

	〈 배경〉		〈 대응 〉
1	수명연장에 의한 장수위험 대두	»	퇴직계좌 내 적격장수연금 도입
2	은퇴기간 연장에 대비한 평생소득 확보 필요	»	SECURE법 제정을 통한 퇴직계좌 내 연금 도입 장려

◉ 본 보고서는 미국 연금 시장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음.

국내 현황 진단			과제
시장 환경	- 저금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 리스크 확대로 보험사의 연금 공급 감소, 시장 축소	»	- 투자형 연금 판매 확대 등을 통한 보험사의 금리위험 노출 축소 필요
상품 개발	- 연금 상품군 제약: 일반정액연금과 변액연금으로 양분 - 중위험·중수익형 연금 판매 미미	»	- 중위험·중수익형 연금 개발 확대 - 기초자산 다양화 및 개별 위험 성향 반영한 상품 커스터마이징 확대
연금 활용	- 은퇴자산으로서 연금과 일반 장기 저축상품의 차별화 부족 - 연금 계약유지율이 낮아 은퇴자산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짐	»	- 연금 고유의 기능을 살려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연금 활용 플랜 제시 및 관련 교육 실시

Ⅰ. 서론

◉ **수명 연장으로 장수위험이 심화됨에 따라 종신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죽기 전에 자산이 먼저 고갈될 수 있는 '장수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의 연금(annuity)은 은퇴 후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금융상품으로, 종신소득 지급을 통해 장수위험을 해결할 수 있어 장수시대의 핵심 금융상품으로 여겨짐.

◉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금리형 연금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금리형 상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연금 시장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생보사가 판매하는 금리형 일반연금의 초회보험료(신규가입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2014-2018년 사이 75.2% 감소하였음. 변액연금을 포함한 생보사 연금의 총 수입보험료 역시 4년 새 25.1% 감소하는 등 연금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임.

◉ **한편, 미국 연금시장은 저금리 및 시장 변동 위기를 수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 비결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연금 역사는 200여년에 달하며,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경기 사이클 변동, 저금리, 경제 위기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연금시장은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19년 미국의 연금 판매액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생명보험마케팅리서치협회(LIMRA)는 향후 2년 간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가 회복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음.

◉ **본 보고서는 미국 연금 시장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저금리·장수시대라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연금시장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본 보고서는 국내 연금시장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므로 미국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individual annuity)시장 및 상품을 주 분석대상으로 한정함.

<미국 연금 상품 개요>

연금(annuity)

- 보험료 납입의 대가로 정기적인 인출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
- 연금은 적립 및 운용 시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에 과세(세금이연)하는 대표적인 사적 노후저축(retirement saving) 상품임.

■ **연금계약 설정 방식**에 따른 상품 구분

① 그룹연금(group annuity) :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상품으로, 기업이 지원하는 퇴직계좌에 편입됨.

② 개인연금(individual annuity) : 개인이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

■ **연금 적립액의 가치변동 방식**에 따른 상품 구분

① 정액(fixed)연금 : 적립금이 정해진 이율로 부리됨. 해당 이율은 보험회사에 의해 고정되거나 일정 주기 마다 변동됨.

② 변액(variable)연금 : 가입자의 투자자산 배분과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 적립금이 변동됨.

■ **세제적용**에 따른 구분

① 적격연금(qualified annuity) : traditional 401(k) 및 IRA에 편입하는 연금으로, 납입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연금. 연간 납입액에 제한이 있고, RMD (최소인출의무) 적용을 받음.

② 비적격연금(non-qualified annuity) : 세후 소득으로 납입(소득공제 없음)하며, 수령 시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함. 납입액 제한이 없고, RMD 적용받지 않음.

Ⅱ. 금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상품 발전

1812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연금(annuity)이 출시된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시장의 양태가 달라져왔음. 본 장은 미국의 금융환경(금리 및 주식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금 상품 개발의 관점에서 연금 시장의 역사를 분석하였음.

1. 안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주목받은 연금(1930~1970년대)

◉ **대공황 이후 불안정한 경제상황 가운데 노후에 대비하는 안전한 저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연금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함.**

–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1929~1939) 을 계기로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은행이 파산함. 당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저축상품인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연금은 19세기 초 최초 출시되었으나 당시의 대가족 중심 사회 구조에서는 노후자금으로써 연금의 효용이 주목받지 못했음. 20세기 들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상대적으로 보험사 및 연금 상품의 안전성의 강조되었고, 이것이 이후 연금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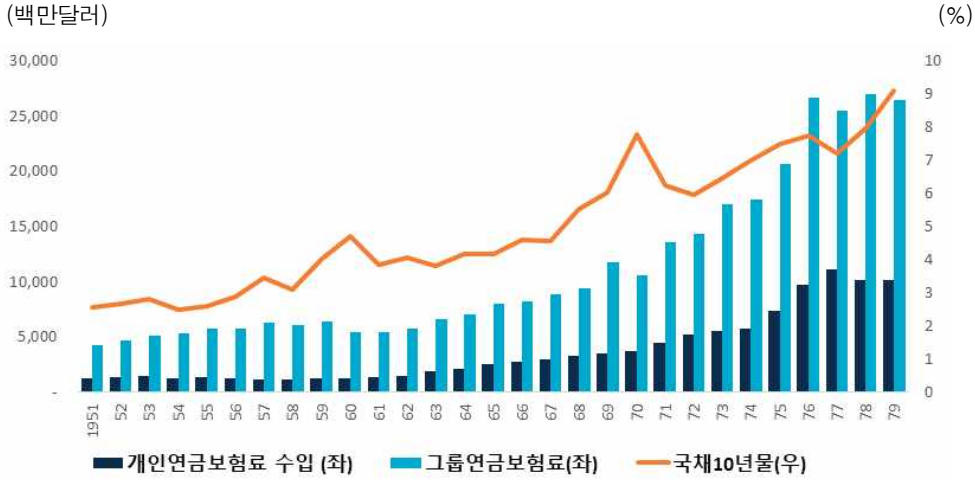
– 주로 연납보험료 은퇴연금(annual-premium retirement annuity)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확정이율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은퇴 저축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음.

◉ **2차 세계대전 후 지속적인 금리상승과 그룹연금 도입에 힘입어 1970년대까지 정액연금(fixed annuity)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차 세계대전 종전(1945년) 후 개인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GDP 대비 개인연금보험료 비중은 1951년 0.06% → 1981년 0.34%로 5배 성장함)

– 확정급여형 기업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이 도입되면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그룹연금을 도입하였으며, 1940~70년대 그룹연금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룹연금 가입자 1958년 390만 명 → 1988년 3800만 명)

<도표 1 > 개인 및 그룹연금 연간 연금 보험료 수입



자료: American Council on Life Insurance 자료 재정리 (1994년 달러기준)

2. 주식시장 상승과 변액연금 판매 확대(1980년대~2000년)

◉ 전후 1950~60년대 호황기의 주가 상승은 주식 시장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후자산을 축적하고자하는 투자 심리를 일으킴.

◉ 1950년대 중반 변액연금(variable annuity)이 개발, 출시되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초반에는 성장세가 더뎠음.

– 변액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품임. 향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The Participating Annuity Life Insurance Company가 1954년 개인 변액연금 판매 시작

– 그러나 변액연금 개발 후 약 30여 년 간 상당 수 미국 주정부에서 변액연금에서의 별도계정(특별계정)활용을 규제함에 따라 70년대까지는 변액연금의 성장이 더뎠음.

◉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주식시장 상승과 더불어 변액연금 판매가 급증하였으며, 증가세는 200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음.

– 1980년대 이후 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변액연금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77년 67만 건 → 93년 525만 건, 7.8배로 성장)

– 주식시장은 2002년 IT버블 붕괴 전까지 가파른 상승을 지속한 반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함. 확정금리를 주는 정액연금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대신 성장하는 주식시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변액연금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변액연금 판매가 증가하면서 1993년 연간 변액연금 판매액이 정액연금 판매액을 추월하였음.

<도표 2> 변액연금 계약 건수 (1977~1993)

자료: American Council on Life Insurance 자료 재정리

<도표 3> 연금 연간 판매액 (1990~2000)

자료: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survey

3. 중위험·중수익형 연금 발전(2000년대 이후)

금리 하락세와 함께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전통적인 연금 상품에 정액연금과 변액연금의 장점만 더해 중위험·중수익형 상품이 개발, 출시됨. 정액연금의 성격을 유지하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과 변액연금의 주가하락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화연금'이 대표적임.

1)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 (FIA, fixed-index annuity) 개발

◉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1]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시장지수(S&P 500 등)의 상승률에 따라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상품임.**

– 지수형연금은 정액연금보다는 더 많은 위험(잠재적 수익)에 노출되지만, 변액연금보다는 위험(잠재적 수익)이 적은 중위험·중수익형 상품임.

1) 이하 지수형연금으로 표기

· 지수형연금은 최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과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실은 없다는 측면에서 '정액연금'의 일종으로 분류됨.

◉ 닷컴버블 붕괴 후 지수형연금 판매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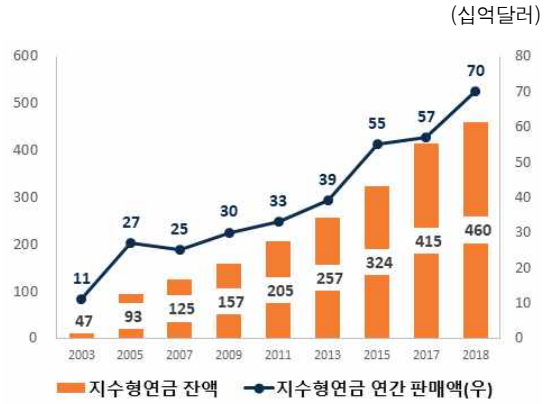
– 2002년~2004년 닷컴버블 붕괴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변액연금은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지수형연금은 최소 수익률을 보장받았고,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이로 인해 이후 지수형연금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 2003년 110억 달러였던 지수형연금 연간 판매액은 2018년 700억 달러로 15년 만에 6.4배 성장함. 연간 판매액 증가율(CAGR)은 13.1%였음.

– 지수형연금 판매가 증가하면서 2019년 전체 연금 판매액 중 지수형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까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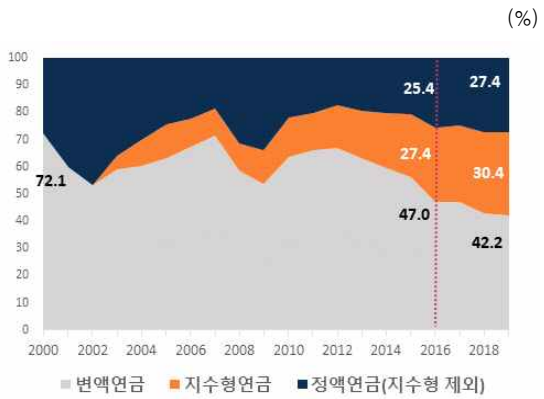
· 1993년 이후 변액연금 판매액이 정액연금을 넘어섰으나 (앞선 <도표 3> 참조), 지수형연금이 인기를 끌면서 2016년에는 지수형연금을 포함한 정액연금 판매액이 변액연금 판매액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임. (정액연금 52.8% vs 변액연금 47.0%)

<도표 4> 지수형연금의 성장



자료: LIMRA, IRI 2018 retirement fact book
※ 2018년 연금잔액은 당시 전망치임

<도표 5> 연간 연금 판매액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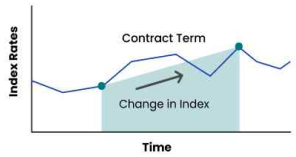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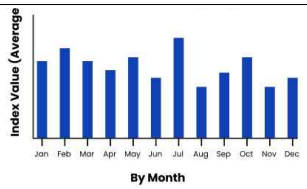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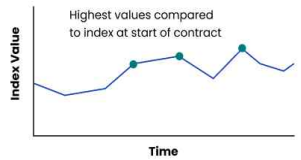
자료: LIMRA, 각년도 Annuity Industry Estimates

<지수형연금 수익결정 구조>

지수형연금은 1) 적립금에 대한 최소수익률을 보장하고, 여기에 2) 연계된 지수의 변화율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결정됨.

1) 최소수익률 보장 : 원금의 87.5%에 대해 1~3%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보존.
2) 추가 수익 제공
   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수 변화율을 먼저 측정하고,
   ② 일정한 법칙에 따라 앞서 측정된 지수 변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① 지수 변화율 측정 방식 (indexing methods)
- 측정 시점이나 평가 수치(최고값, 평균값 등)에 따라 달라짐.

	방식	적용 예시
Annual point to point	- 특정 두 시점의 지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변화율을 산정함. - cap, participation rate 수익률 결정 방식과 결합되어 활용됨.	
Index averaging	- 매일 또는 매달 지수를 트래킹하여 일정 기간(1년 등)의 평균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계약 시작 시점의 지수를 빼서 변화율을 산정함.	
High watermark	- 지속적으로 지수를 트래킹하다가 가장 높은 값을 취한 뒤 여기에서 계약 시작 시점의 지수를 빼서 변화율을 산정함.	

② 추가 수익률 결정 방식 (crediting methods)
- 앞서 측정된 지수 변화율에 대해 수익률 상한을 두거나, 일정 비율만 추가 수익으로 반영함.

	방식	적용 예시
이자율 상한 (cap)	지수에 따라 수익을 반영하되 기간(1달 또는 1년)별 상한 적용	연간 3% cap 설정시, 지수가 4.8% 상승하더라도 최대 3% 수익이 더해짐.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지수 수익의 일정 비율(%) 반영	75%의 참여율을 설정한 경우 지수가 10% 상승시 7.5%의 수익이 더해짐.
스프레드 (spread)	지수 수익에서 마진, 수수료를 제한 비율만큼 반영	4% 스프레드를 가진 연금의 경우 지수가 10% 상승하면 6%의 수익만 더해짐.

자료: Annity.org 및 FINRA.com, 보험사 상품 설명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2) 구조화연금 (Structured annuity) 출시

◉ 20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했으나, 동시에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 연금 적립금의 손실을 관리할 필요성도 높아짐.

◉ 지수 하락 위험을 제한적으로 감수하면서 지수 상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화연금'이 개발됨.

– 2010년 출시된 구조화연금은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의 일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 안전판을 둔 점이 차별점임.

· 구조화연금은 변액연금과 지수형연금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띰.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지수형연금과 동일하지만, 지수 하락 시 손실도 감수한다는 점은 변액연금과 유사함.

· 구조화연금은 지수형 변액연금(Indexed variable annuity), 완충 연금 (Buffer annuity) 으로도 불리며, 변액연금의 일종으로 분류됨.

– 구조화연금은 S&P 500, Russell 2000, NASDAQ 100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되,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floor'와 'buffer'를 둠.

–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손실제한법(floor 또는 buffer), 지수 평가 주기 등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구조화연금은 출시 이후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구조화연금 연간 판매액은 2013년 18억 달러에서 2019년 174억 달러로 6년간 9.7배 규모로 성장함. (<도표 6> 참조)

· 구조화연금을 제외한 변액연금은 2011년 이후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음. 이로 미루어 보아 구조화연금은 변액연금의 대체제로 기능하며 변액연금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보임.

– 구조화연금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불투명한 시장 환경에서도 다른 연금 상품과 달리 비교적 견조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연금 유형 중 구조화연금만 유일하게 2020년 1~3분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판매액이 증가함.

·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시장 변동 상황에서 변액연금과 달리 손실 폭을 제한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화연금의 장점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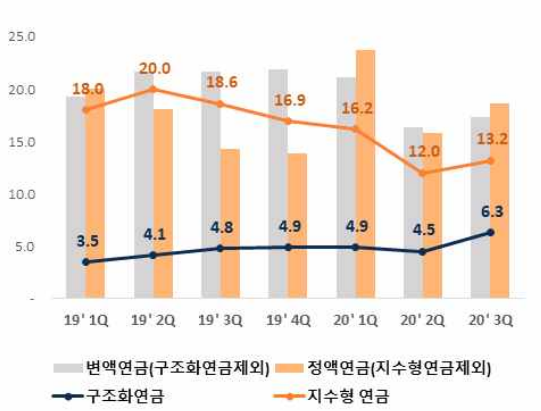
<도표 6> 연간 연금 판매액 추이

(십억달러)

자료: LIMRA

<도표 7> 분기별 연금 판매액 추이

(십억달러)



자료: Secure Retirement Institute, US Individual Annuity Sales Survey, 2020 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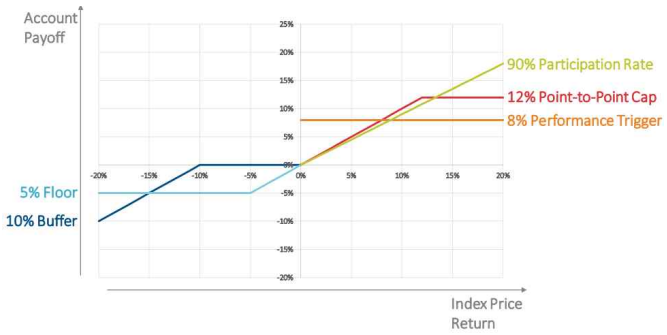
<구조화연금 수익결정 구조>

- 구조화연금은 최소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지수 변화에 따라 일정 주기로 수익이 확정되는 방식을 취함. 지수변화율을 확정하는 방법이나 적립금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법은 지수형연금의 추가수익 결정 방식과 대체로 유사함.
- 구조화연금은 지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손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floor와 buffer 방식을 적용함.

① floor : 흡수 가능한 최대 손실 비율(0~10%). 지수가 많이 하락하더라도 투자자는 최대 floor 만큼의 손실만 입음.

② buffer : 흡수하지 않으려는 손실 비율(10-30%). buffer 비율 이상의 지수하락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해당 손실률에서 buffer 비율을 뺀 만큼의 손실을 입음.

<구조화연금의 수익결정 방식 도식화>



자료: SOA(2019), Annual meeting Session 175 "Intro to Structured Annuities"

III. 장수시대에 대응하는 연금제도 변화

◉ 수명연장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장수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짐.

–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이며,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30년에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수명연장이 보편화된 고령사회에서 장수위험(예상치 못한 노후자금의 조기 고갈)은 개별 가계를 넘어, 복지비 과다 지출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미국 정부는 장수시대에 대응하여 1) 장수연금을 활성화하고, 2) 평생소득 확보를 위해 퇴직계좌에서의 연금 가입·운용을 장려하는 SECURE법을 제정함.

1. 장수연금 활성화

◉ 장수연금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8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연금 개시 시점 전에 사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80세 이후 생존시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됨.

– 장수연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나 그 전에 사망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망자의 보험료가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임.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이 늦은 특성으로 인해 보험료가 일반 일시납연금 대비 30~40% 저렴함.

◉ 2012년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는 은퇴자의 장수위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후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수연금 활성화를 주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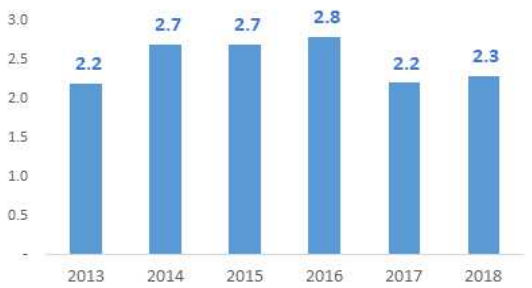
◉ 이에 미국 정부는 DC형 퇴직계좌에 편입 가능한 적격장수연금(QLAC)을 규정하고 세제혜택을 주어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가계가 스스로 장수위험에 대비하도록 함.

– 2014년 적격장수연금(QLAC, 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 요건이 규정됨. 특히 적격장수연금에 대해 최소인출의무(RMD) 규정 적용을 85세까지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어 장수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적격장수연금 도입(2014년)으로 장수연금 신규보험료는 2013년 22억 달러에서 2016년 2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다만 이후 현재까지는 다소 정체된 상황임.

<도표 8> 장수연금 신규보험료 추이

(십억달러)



자료: LIMRA(2019), US Individual Annuities : 2018 Year in Review

<도표 9 > 적격장수연금의 특징

구 분	내 용
연금보험료 한도	퇴직계좌 자산의 25% 또는 13만 5천 달러 중 작은 금액
연금개시 시기	85세 이하
계약 해지	일시금 인출 및 해약 불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중단/배우자에게 지급/ 보험료 환급 등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
기타	정액형만 가능(변액형 불가)

자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2018), 서구 은퇴소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자료 발췌 및 재구성

2. 평생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의 퇴직계좌 편입 장려

◉ 종신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증가하면서, 美 정부는 국민들의 평생소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였음.

– DB형 퇴직연금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가 가입자의 종신 퇴직급여를 보장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에게 운용 및 인출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평생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음.

◉ 기존에도 제도적으로 DC형 퇴직계좌에 연금을 편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DC형 운용상품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퇴직플랜은 10% 내외에 불과했음.

– 고용주들이 퇴직계좌 운용상품에 연금을 포함하길 꺼려왔던 이유는 수탁자 책임(고용주의 책임 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었음. 보험사 파산 및 지급불능 시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연금 도입이 저조했음.

※ Callan Institute(2019) "2019 Defined Contribution Trends." 조사 결과 참조

◉ 이에 美 정부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평생소득 확보를 지원하고자 2019년 SECURE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 SECURE법 Section 204를 통해 연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가 되더라도 과거 보험사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고용주의 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전에 다소 모호했던 규정(보험사 선정시 필요 요건)을 명료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배상책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연금을 퇴직계좌 운용상품으로 편입하는 데 대한 걸림돌이 제거됨.

◉ **SECURE법의 지침 개정으로 퇴직계좌 내 연금 편입이 활성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향후 연금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ECURE 법>

- 2019년 통과된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법은 미국인들의 은퇴 후 수입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6년 Pension Protection Act 이후 가장 큰 연금제도 개혁을 담은 것으로 평가됨.
- SECURE 법은 1) 퇴직연금 가입률 증대, 2) 효과적인 노후자산 운용을 위한 퇴직계좌 제도 개선, 3) 장수위험에 대비한 종신소득 확보 등의 세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됨.

목적	주요 조항 내용
퇴직연금 가입률 증대	- 퇴직연금 가입 제한을 완화하여 소규모 기업에도 가입을 허용 - 장기근속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 -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자동연계제도 가입을 독려하는 세금 크레딧 제공
효과적인 노후자산 운용을 위한 퇴직계좌 관련 제도 개선	- 개인은퇴계좌 (IRA)가입 제한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 연금 최소인출의무(RMD)가 적용되는 나이를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 상속받은 연금의 10년 이상 이연을 제한
장수위험에 대비한 종신소득 확보	**- 평생소득 공시 제공(lifetime income disclosure requirements)** **- 연금 제공사 선정을 위한 세이프하버 지침 개정** **- 평생소득 옵션의 이관성(portability) 향상**

자료:자본시장연구원(2020), [미국 연금법 개정의 특징과 의미] 참조하여 재구성

IV. 결론

◉ 미국 연금 시장과 제도는 저금리·장수 시대로의 변화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왔음.

금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한 연금상품 발전

〈 배경〉		〈 대응 〉
1 대공황 이후 불안정한 시장에서 안전한 장기 저축 수요 증가	»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장기저축의 장점이 강조되며 연금 시장 확대
2 주가 상승으로 인한 고수익 추구 니즈 확대	»	주식투자를 통해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 개발
3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은퇴 저축 수요 증가	»	중위험, 중수익 성격의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 구조화연금 출시

장수시대에 대응하는 연금 제도 변화

〈 배경〉		〈 대응 〉
1 수명연장에 의한 장수위험 대두	»	퇴직계좌 내 적격장수연금 도입
2 은퇴기간 연장에 대비한 평생소득 확보 필요	»	SECURE법 제정을 통한 퇴직계좌 내 연금 도입 장려

◉ 미국 연금 시장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함.

– **[연금 시장]** 수명연장에 따라 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및 신규 판매가 감소하면서 국내 연금시장이 축소되고 있음.

· 저금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연금보험 리스크 확대로 보험사의 연금 공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보험연구원(2019),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 **보험사는 저금리 환경 가운데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야 함. 변액연금 및 구조화연금 등 투자형 연금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품 개발]** 일반정액연금과 변액연금으로 연금 상품군이 제약되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

· 국내에서 2003년에 채권금리연계형 연금, 2006년에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연금 등 자산연계형 연금이 출시되었지만,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해 관련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함.

→ **미국 중위험·중수익형 연금의 다양한 상품구조와 소비자 맞춤형 설계를 참고하고, 기초자산을 다양화하는 등의 혁신적 상품 개발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가야 함.**

– **[연금 활용]** 연금은 종신연금 지급이 가능한 은퇴대비 상품임에도 일반 장기저축상품과 차별화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약유지율이 낮아 은퇴자산으로써 활용도가 낮음.

· 2014년 기준 연금의 10년 유지율은 21.2%로, 전체 생명보험 상품(32.7%)이나 변액상품(32.2%)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낮은 유지율을 보임 ※ 2014년 보험개발원 자료 참조

→ **연금이 본연의 특성에 맞게 장수시대의 핵심 은퇴자산으로 쓰이도록 하는 최적의 연금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더불어 그 실행을 돕는 교육이 연금 판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투자와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